

2018년 (제1회) 서울 기독교교전읽기

“사막교부들의 금언집”

일 시 : 2018년 4월 12일(목) 오전8시-12시

장 소 : 은강교회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4길 46)

◆ 주최 : 서울목회자인문학아카데미, 크리스찬아카데미

◆ 주관 : 크리스찬 아카데미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702호

Tel. 02)747-6189~0 Fax 02)747-6181

크리스찬아카데미 목회자인문학, 기독교고전 읽기(2018-2020)

- 법고창신(法古創新)의 향연, 그 축제로의 초대-

*제안/ 강치원 목사(크리스찬아카데미 기독교고전읽기 기획위원장)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이 있다. 연암 박지원에게서 유래하는 이 말은 ‘옛것을 본받아 새 것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시사하듯 옛 것과 새 것의 창조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옛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읽어낼 수 있고, 새 것을 전통 가마에서 빚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뜻한다. 이런 ‘법고창신’의 정신을 우리는 ‘근원으로’(ad fontes)라는 명제를 내걸고 고전읽기에 심혈을 기울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근원으로’라는 말은 중세 후기에 교회에 실망하고 절망해 있던 지성인들에게 숨통을 틔여주는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성경과 초대 교부들의 독서를 통해 메마르고, 타락한 교회가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로 다시금 태어나리라는 희망을 움트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희망이 담긴 독서의 향연에 루터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읽기와 재해석은 전 유럽의 지축을 뒤흔들고, 기독교의 지도를 새롭게 쓰게 하는 종교개혁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세 후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처럼 신학적인 무지와 도덕적인 저속함과 영적인 무력감이 교회를 휘몰아치고 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지금도 교회는 비판을 넘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붙잡기 위해 기독교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 교부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글을 법고창신의 자세로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과 교부들을 바르게 이해하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갱신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크리스찬아카데미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독교고전읽기’로 응답하고자 한다.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신앙의 위대한 고전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배우며, 창조적인 재해석을 통해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살려내는 장을 만들 고자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고전읽기’가 새벽 여명을 찾는 독서요, 한국교회에 희망의 빛을 던지는 읽기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하는 길이기를 소망하며 ‘법고창신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1. 기독교 고전 읽기 진행

1. 형식 : 북 콘서트
2. 진행 : *MC/ 기획위원장 강치원 목사
*발제/ 전공자 1인 *패널/ 지역목회자 1인
-- 기획위원장, 발제자, 지역패널이 토크 콘서트로 진행
3. 참여 : 지역목회자
4. 회비 : 각 2만원
5. 기간 : 2018년 -2020년(3년) 분기별 12회 모임
중간에 ‘시대 읽기와 목회’를 주제로 모임 추가.
6. 모임 시간
개회기도, 목회나눔과 친교(1시간)/ 발제와 논찬, 대화(3시간)/ 식사 등으로
4-5시간으로 진행한다. (오전 9시-오후 1시, 혹은 오후 1시 반-오후 6시)
* 발제와 논찬 구성 : 30분 서론, 70분 발제와 강독, 80분 질의응답 및 토의
7. 책 출판
“목회자의 기독교 고전읽기” 목록 리스트를 주제별 정리하여 사회자, 발표자, 논찬, 참여자의 질의응답을 녹취하고 정리하여 책으로 만든다.

II. 필독도서와 발제 안내

1.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 남성현 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발제: 남성현 박사(한영신학대)
2.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고백록』.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6.
- 발제: 서원모 박사(장신대)
3.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자연과 은총에 관한 주요 문제들』. 손은실, 박형국 공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발제: 손은실 박사(장신대)
4. 토마스 아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문제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6.
유재덕 역. 서울: 브니엘, 2016.
- 발제: 최승기 박사(호신대)
5. 마르틴 루터.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빌론 포로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서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논설』. 황정욱 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7.
- 발제: 황정욱 박사(한신대) 또는 최주훈 박사(루터중앙교회)
6. 장 칼뱅. 『기독교강요』.
- 발제: 박경수 박사(장신대)
7. 필립 야콥 슈페너. 『경건한 소원』.
- 발제: 김문기 박사(평택대) 또는 지형은 박사(성락성결교회)
8.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후정 역.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 발제: 이후정(감신대) 또는 이성덕 박사(배재대)
9. 칼 바르트. 『로마서강해』. 조남홍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황덕형 박사(서울신대)
10. 라인홀드 니버. 『종교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17.
- 남태욱 박사(열린교회) 또는 이창호 박사(장신대)
-
11. 디트리히 본회퍼. 『옥중서신』.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6.
- 전철 박사(한신대) 또는 김순현 목사(여수 돌산 갈릴리교회)
12.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지역모임 일정> 4월, 6월, 9월, 11월(분기별), 주일 지난 요일로 계산

- *부산/ 첫번째 목요일 오후 2시- 6시반
- *서울/ 두번째 목요일 오전 8시-12시반
- *대전/ 세번째 목요일 오전 8시-12시반
- *인천/ 네번째 목요일 오전 8시- 12시반

제 1강을 열며 : 사막교부들의 금언집

강치원 목사(장신대 초빙교수)

1. 사막의 도서관으로 떠나는 여행

사막이 직립해 있는 곳엔 가지 마세요 수천만 페이지 모래바람 펄럭이는 구름, 낙타처럼 걸어가는 독서는 젊음을 화려르 쏟아놓곤 해요 거기 어디선가 별들이 소곤대지만 제 귀는 사르르 스쳐가는 소리만 들어요 사막을 횡단한 사람도 첫발을 디딘 사람도 똑같이 발을 헛디더요 무너지기 좋을 만큼 발밑으로 바람이 흘러요 길이 있다는 말듣고 길따라 흘러 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갈증이 깊어지면 모래가 물이 되는 사막엔 가지 마세요 은하수가 불모의 강이라고 읽기 싫어요 낙타가 되긴 싫어요 아버지진 오래 전부터 모래였어요 바람뿐인 아버지를 낙타라고 읽긴 정말 싫어요

사막으로 출근하고 사막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아버지, 수천만 페이지의 사막을 다 건넌 사람은 없어요 사막을 횡단하다 사막이 되어버린 아버지, 아버지질 펼치면 오아시스에서 별해고 있는 어머니, 스스스 미끄러지지만 하는 어머니 언젠부터 유사의 강이었나요

바람을 만나야 길을 얻는 모래에게 바람은 낙타란다 낙타의 등에 올라 타렴 모래처럼 스스스 달려보렴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안이니

타박타박 낙타처럼 걸어가는 활자들, 길 잃으려 사막 간다 길 버리려 사막 간다

『시와 산문』 2009년 겨울호에 실린 권기만의 ‘도서관’이라는 시의 전문이다. 길을 찾기 위해 가는 도서관으로 비유되는 사막, 이 사막으로 우리는 낙타처럼 타박타박 걸으며 출근하고 퇴근한다. 우리가 찾아가는 사막이라는 도서관은 수천만 페이지의 모래바람이 펄럭이는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으로 상징되는 모래가 길을 얻으려면 바람을 만나야 한다. 바람은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이 물고 오는 것, 결국 사람을 만나야 모래는 길이 된다. 이 길은 이전의 길을 잃는 길이요, 이전의 길을 버리는 길이다. 외견상 같은 길일지라도 같은 길이 아니다.

이런 사막이라는 도서관으로 타박타박 낙타처럼 걸어가는 활자들이 있었다. 주후 4-5세기에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사막 등에는 도서관을 찾아가는 수도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이 물고 온 바람으로 모래가 길을 찾았는데, 길을 버렸다는 역설적인 신비는 입소문을 타고 전 로마제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 소문의 바람을 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찾게 되었다.

사막 도서관의 신비가 낙타를 탄 사람들만 간직하기엔 너무 컸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막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신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사막으로 들어온 이들 중 어떤 이들에 의해 사막의 모래가 파피루스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활자들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끝자락에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Apophtegmata Patrum)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들에 의해 ‘희미한 잉크가 좋은 기억력보다 더 낫다’는 말이 실감나게 와 닿는다. 사막의 지혜를 지금도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영적인 수맥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열정의 유산이리라.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남겨야 하는 신앙의 기록문화유산은 무엇일까?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우고 남긴 도서관에 와서 읽고 마음에 새길 그 무엇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는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사막의 도서관, 이곳으로의 여행이 우리의 첫 번째 텍스트 여행이다.

2. 생활에 밑줄을 긋는 ‘우리 동네 목사님’의 떠남

사막의 모래로 이루어진 이 텍스트는 실은 사막 수도사들의 삶 자체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열한 삶을 통해 지혜의 우물을 길어 수 있는 소중한 책이 되었다. 삶 자체가 책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기형도 시인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말을 혀로 말하고 글로 쓰기 전에 삶으로 살았다. 그들은 말씀이 녹아드는 일상을 살았고, 삶으로 지혜를 쓰는 기형도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긋던 ‘우리 동네 목사님들’은 율법을 달달 암기하고, 필요에 따라 잘 나열하는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들이 택한 곳은 원시의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텅 빈 사막의 동굴이었다. 이 독방에서 그들은 고독과 씨름하며 활자 너머에 있는 깨달음에 이르러자 했다. 그러나 홀로 있음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산 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도시 사람처럼 행세하다가 망했다”(47)는 말이 보여주듯이 독방의 고독을 고립으로 느껴 무리 속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홀로 방에 있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관계의 망을 치고 자판을 두들기느라 내적인 고요를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이 비쳐온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들은 가슴에 느껴지는 고립의 끈을 풀고 영적인 교제와 배움을 위해 독방을 떠나곤 하였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은 단호했다.

“떠나라. 그대의 수실에 머물라. 그리하면 그대의 수실이 그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46)

모든 수도자들이 독방의 고독 속에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그래서 스승은 말한다.

“왕래가 잦은 길은 설령 씨를 뿌리더라도 행인들이 그곳을 밟고 지나다니므로 어떤 풀도 싹이 나지 않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모든 일에서 물러서라. 그러면 그대는, 그동안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대 속에 있지만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싹트는 것을 볼 것이다.”(48-49)

깨달음은 서로 통하는 것일까? 인도 고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절대 고독의 가운데 우뚝 선 자, 그가 곧 수도자다. 언제나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자, 그 꽃향기로써 넘치는 자, 그가 곧 수도자다.’ 그렇다. 고독은 텅 빈 공간이 아니다. 마음의 고요를 지향하는 고독은 하나님의 실존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골방이다. 내려놓음과 비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사막의 독방은 영혼의 꽃씨가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영적인 오아시스다.

이런 사막의 독방은 사하라나 고비사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실존의 어느 한 구석에는 절대 고독과 대면하며 내적 고요를 추구하게 하는 공간이 있다. “비록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수도자는 한 은자(隱者)로서 자기 실존의 내적 황무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토마스 머튼의 말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사막 도서관으로의 여행은 우리를 “자기 실존의 내적 황무지를 개척”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이 요청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파스칼이 말하듯,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3. 내 안에도 사막은 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砂)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1939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유치환의 시 '생명의 서' 전문이다. 삶의 본질과 의미를 추구하려는 사람은 생의 짐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병든 나무” 같은 실존을 직시하곤 한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에 있다. 그에게는 병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하다. 이 약을 찾아나서는 시인은 자신의 발길을 사막으로 인도한다.

세파에 시달리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사막으로 초대하다니? 사막이란 작열하는 태양으로 인해 모든 생명이 존재를 멈추는 곳이 아닌가?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하여 영원한 적막함이 있는 곳, 절대적인 고독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오직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곳이 아닌가? 인간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련과 고난이 극심한 “열사의 끝”인 사막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 있는 자신을 대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의해 덧씌워지지 않은 “원시의 본연한 자태”인 참된 나를 만나 '생명의 서'를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유치환과 비슷한 시기에 사막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생텍쥐페리이다. 조종사로서 사막에 여러 번 불시착을 한 경험이 있는 그는 사막을 화두로 삼아 『인간의 대지』(1939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 『어린 왕자』(1943년)를 선물로 남겼다. 그에게 있어 사막은 “하나의 광대한 죽음의 영토”였다. 그러나 그 이상이었다. 사막은 자신 “쪽으로 끊임없이 걸어 오는 하나님”이기도 하였으며, “사막, 그것은 바로 나다”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사막은 “우리 내부에 생겨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하라가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사막이 우리의 내부에도 있다는 통찰은 사막이 한편으로는 신을 만나는 도량(道場)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찾는 도량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었다.

그래서일까? 사막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음의 사막에 대해 언급한다. 산악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산악인으로 간주되는 라인홀트 메스너는 2004년, 60의 나이에 고비사막을 홀로 걷는다. 그리고 6주 동안의 사막여행을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라는 책으로 엮어낸다. 제목이 시사하듯이, 그는 “인간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세계”인 “내 안의 사막 언저리”에 대해 생각한다(17쪽). 그리고 “나를 찾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비로소 내 안에 자리한 사막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고백한다(17쪽).

사막을 걸으며 내면의 사막을 만나는 경험은 독일의 탐험가요 저널리스트인 아킬 모저에게서 보다 폭넓게 이루어진다. 17세부터 30년간 세계의 사막 25곳을 여행한 그는 『당신에게는 사막이 필요하다』(2013년)며 보다 직설적인 주문을 한다: “누구에게나 한 조각 황량한 광야의 고독이 필요하다. 삭막한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내부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공허한 광야와 사막이 있다.” 30년 동안의 사막여행은 자기 내면의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 그 곳에서 삶의 고독과 대면하게 하는 자기성찰의 길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막에서의 삶은 근본으로 축소된다. 사막이 내뿜는 절대적인 고요와 고독 속에서 인간은 그가 본래 속했던 곳, 바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간다.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유목민의 삶으로 흡수되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축소됨으로써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느낌이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사막으로의 여행은 모든 군더더기를 제거한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만 붙들게 한다. 이런 축소를 위해서는 만족하고 포기하는 마음공부가 필요하다. “사막에서 제한된 양의 물을 가지고 여러 날을 지내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만족과 포기”이기 때문이다.

4. 모래로 밥을 지어먹고 절벽의 물을 마시다

사막 도서관을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일제강점기 때 작사된 ‘햇별은 쨍쨍’이라는 동요가 들리는 것은 왜일까? “햇별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 해놓고 조약돌로 소반 지어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냐냐.” 모래알로 떡을 해먹은 것은 낭만적인 어린 시절의 우리만은 아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텅 빈 사막으로 나간 수도사들은 모래로 밥을 지어먹는 삶을 살았다. 불교에서는 모래로 밥을 지어먹는 것을 어리석은 수행으로 묘사하곤 한다. 『능엄경』(楞嚴經)에 보면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않고 선정 수행을 하는 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백천 겁을 삶아도 뜨거운 모래일 뿐이다”는 말이 나온다. 이 『능엄경』의 영향으로 원효대사는 “지혜 있는 사람의 행위는 쌀을 찌서 밥을 만드는 것과 같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소행은 모래를 찌서 밥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막의 모래처럼 흩뿌렸던 우리의 수도사들은 그 모래가 영적인 양식이 되었다. 텅 빈 사막에서 그들은 “무소유는 모든 것보다 큰 것”(117)이라는 가르침에 순종하여 “자발적인 가난”(120)의 삶을 살았다. 그들의 청빈(淸貧)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116-17) 성빈(聖貧)으로 이어졌다. 청빈과 성빈, 이것은 수도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되었다. 그저 동요로만 부르던 낭만적인 이야기가 사막의 수도사들에게는 현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궁핍하지 않았다. 절제와 금식을 통해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는데 익숙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식사문화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바로 “거룩한 말씀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교부들의 거룩한 이야기로 축제를 즐기고, 우리의 위를 즐겁게 하지 말고 영적 기쁨을 누리세”(83)라는 가르침이다. 음식의 양이 아니라 맛을 추구하는 요즈음, 그래서 혀를 즐겁게 하는 음식이라면 비싼 값도 기꺼이 치르는 요즈음 청빈과 성빈에 이르는 길이 멀게 만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모래알로 떡 해놓고 조약돌로 소반 지어” 함께 나누는 식탁문화가 그림다.

이런 그리움은 이제 우리에게 목마른 갈증이 되었다. 풍부함 속에서 겪는 영적 목마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역설이다. 모두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역설을 절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한 방울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정호승 시인은 ‘물 먹는 법’이라는 시에서 이런 이들을 사막으로 초대한다.

목마를 때 오히려 사막을 마셔라
소금 같은 사막의 모래를 마셔라
목마른 낙타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걷다가
잠든 사막의 별을 마셔라
나는 오늘 사막에 떨어진 별 하나 주워
별 속에 출렁이는 바닷가
새들이 마시는 물을 마신다
새들이 알을 낳은 절벽을 깨뜨려
절벽의 물을 마신다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 사막으로 나가 사막의 모래를, 사막의 별을 마시자. 나의 내면이 황폐화되어 사막으로 변해 마실 물이 사라질 때, 절벽을 깨뜨려 절벽의 물을 마시자. 이것이 사막 교부들의 삶이 보여주는, 물을 먹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막이 필요한 이유이다.

5. 고독, 누가 알까?

수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막이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에서의 책읽기는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하물며 독방에서 모래알을 세는 책읽기는 더 지난(至難)한 영적인 수련이다. 어디 책읽기만 그러했겠는가? 독방은 수도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온갖 사탄의 계교들이 들끓고 있는 싸움터였다. 그중 가장 극심한 것 중의 하나는 성적인 부정(不貞)의 사념(邪念)과 싸우는 것이었다. 이런 부정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사막의 독방을 떠나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곤 하였다.

이들에 비해 부정의 사념들과 잘 싸워 이기는 수도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을 보아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싸움터인 독방에 머물며 구도의 길을 계속 걸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스승은 이렇게 대답한다:

“수도자는 토끼를 쫓는 개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네. 어떤 개 한 마리가 토끼를 보고 쫓아가면, 다른 개들은 그 개를 따라가며 쫓지만 조금 달리다가 곧 뒤로 돌아온다네. 오로지 토끼를 본 그 개만이 토끼를 잡을 때까지 쫓아가게 되지. 그 개는 다른 개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자기의 목표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낭떠러지며 잡목이며 가시덤불에도 아랑곳하지 않네. 가시에 긁혀 살갓이 자주 찢기기도 하지만 중단하지 않는다네.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도 마찬가지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가 만난 모든 거침들을 무시해야 하는 것일세.”(140)

사막의 수도사들이 모래에 담아 남긴 거대한 지혜의 도서관에는 수도사들의 인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침들을 무시”하며 달려간 그들의 마음과 몸에는 온갖 생채기들이 남겨 있다.

이 고독의 몸부림과 생채기를 누가 알아줄까? 예수에 대한 그의 신앙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성고독’(聖孤獨)이라는 시에서 박두진은 예수의 고독을 ‘누가 알까’라는 말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환호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박두진의 예수는 “빈 하늘 우러르는 / 홀로 그때 쓸쓸함을 누가 알까”라는 고독함에 던져진다. 골고다에서의 죽음 이후 “모두는 돌아가고 / 적막 / 그때 / 당신의 그 울음소리를 누가 알까”라는 철저한 고독의 질문을 던진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예수의 고독을 이해하고, 그 고독에 동참하려 몸부림 친 여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성공했든, 아니면 실패했든 말이다. 사막의 독방에 남아 온갖 부정(不貞)의 정념들과 싸워야 했던 수도사들의 고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직도 사막의 도서관으로 가 그들이 남긴 고독의 흔적을 더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고독이 골방에 갇혀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6. 사막에 생명의 기운을 싹트게 하는 호곡장(好哭場)

기도 하면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을 떠올린다. 물론, 감사의 기도도 있고, 기쁨의 기도도 있다. 여기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눈물을 말한다. 사막에 물이 흐르는 때가 있다. 비가 올 때이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도 강물이 흐르는 때가 있다. 바로 사막의 수도사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이다. 이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은 수도사들이 본질적으로 지녀야 하는 요소로 보았다. 스승은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어디든 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눈물과 애통이 뒤따라야 한다.”(61)

물이 없는 사막에서 수도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하는 본질적인 필수품, 그것은 영적인 애통함과 그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었다.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고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두려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치는 자신의 죄 때문

에 흘리는 눈물이다. 어디 이것 때문 만이겠는가? 죄 많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스승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곳은 “주님의 십자가 옆”이라고 말한다(58). 그리고 “우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준 길이다. 우리 교부들도 ‘웁시다’하고 말했다. 실로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한다(58).

사막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은 바로 수도사들의 눈물 때문이었다. 금방 모래 위를 흐르지만, 이내 말라버리는 빗물과는 달리 수도사들의 눈물은 사막의 영혼을 촉촉이 적시는 하늘의 선물이었으리라. 그들의 독방은 연암 박지원이 말하는 ‘호곡장’이 아니었을까? 답답한 감옥 같던 조선을 벗어나 요동벌의 허허벌판에 이르자 사방을 둘러보곤 탄복을 하며 “호곡장(好哭場)이니 가이곡의(可以哭矣)로다!”하고 말한다. ‘울기 좋은 장소니 한번 실컷 울어볼 만한 곳이로구나!’는 뜻이다. 이때 천지간에 이렇게 넓은 땅을 보고 겨우 울기 좋은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는다. 연암은 “천고영웅선읍(千古英雄善泣)이오, 미인다루(美人多淚)라!” 대답한다. ‘천고 영웅들은 모두 잘 울었고, 미인들은 눈물이 많았다!’는 뜻이다.

실컷 울 수 있는 ‘좋은 울음터’인 ‘호곡장’이 수도사들에게는 사막이요, 사막의 독방이었다. 이곳에서 흘린 그들의 눈물은 사막에 생명이 깃들게 하는 샘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천고의 영웅이었다. 요즘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라고 한다. 교회에서도 눈물은 흥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때, 호곡장을 찾아 나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울고, 나라 때문에 우는 천고의 영웅이요, 미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7. 우리의 존재는 무(無)인가?

호곡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천고의 영웅들과 미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영웅적이며 미적인 의로움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제자에게 스승은 “그대의 의로움을 확신하지 마시오”라고 대답한다(31).

사실 사막까지 들어와 구도의 길을 가던 수도사들에게는 자기 의를 내세울 유혹에 빠지곤 하였다. 내적 고요를 추구하기 위해 사막의 동굴에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거기에다 금식이니, 기도니, 성경읽기니, 눈물을 흘리는 것 등 자기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의로운 그 무언가가 존재하였다.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관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의가 고개를 들곤 하였다.

그런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소리가 사막을 다시금 울린다. 인간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의는 실상 자신의 의가 아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의로 간주하시는 것이라는 루터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들의 저항의 소리 때문일까? 스승은 또 다시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하라. 그대의 뜻을 그대 뒤로 던지라. 그리고 세상의 염려에 대해 무심(無心)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식을 얻으리니.”(37)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의롭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도 내세울만한 것이 아니다. 뒤로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는 것이 먼저이다. 일명 ‘노예의지’를 주장하던 루터에 대항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던 에라스무스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쳐온다.

그렇다. 우리의 존재는 무(無)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 변화의 결과는 사막에 수많은 문자를 남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는 책이요, 도서관이 된다.

8. 사막의 도서관: 장명등(長明燈)을 밝히는 지혜의 보고(寶庫)

사막의 수도사들이 모래 한 알 한 알에 남긴 구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다 문학화된 사막의 도서관이 되었다. 이 도서관은 당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에게 길을 비쳐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지혜의 등불’이나 ‘사막의 등대’라고 불릴 수도 있다.

유럽의 수도원 기행을 통해 수도원문화에 대해 감각을 가지게 된 공지영은 『지리산 행복학교』에서 자신을 찾고 싶어 지리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사막 교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26). 타고난 그대로의 고유한 내 자신이 될 수 없는 도시를 탈출하여 지리산으로 들어와 자신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와 이들 주변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에서 사막의 수도사들과 비교할 수 있는 접착점을 찾고 있다. 좁은 황당하게 보여도 한 소설가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공지영은 ‘40년 산사람으로 산 함태식 옹’에 대한 글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며 흥미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함태식 옹의 말이다:

“노고단 산장에 처음 가서 내가 호롱불을 만들어 현관에 달아놨어요. 근데 작은 호롱불빛이 말이야. 멀리 화엄사 입구에서도 보여. 등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오는 거야. 길게 밝혀 준다고 그걸 장명등이라고 하지.”(59-60)

노고단 산장에 단 등을 장명등으로 표현하는 함태식 옹의 말을 받아 공지영은 그의 삶을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 “작은 일도 지극해지면 생명을 살리는 등불이 된다. 장명등,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52)

장명등(長明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과 길을 가르쳐주는 등불이다. 이 장명등이 도시를 떠나 지리산에 들어가 원시적인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사막 수도사들의 모습이 어렵듯이 나타난다. 그들 또한 도시를 떠나 원시적인 고요가 지배하는 사막에서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처절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막의 도서관 문화를 만들었다. 본질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갈증을 축일 수 있는 지혜의 우물을 파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사막의 도서관 입구에는 어김없이 장명등이라 불릴 수 있는 등불이 켜졌다. 지혜의 보고를 찾아 사막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불빛을 밝히는 장명등은 지금도 사막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그곳이 내 마음의 사막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내 사막의 책장 켜켜이 쌓인 삶의 모래들을 닦고 또 닦아야 되지 않을까?

초기 기독교 영성의 탄생

남성현(한영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1-3세기에 기독교는 불법종교였고 간헐적으로 10차례의 박해를 당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신앙에 자유를 부여했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80년 2월 28일 법을 공포하여 '모든 로마 백성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하여 1-3세기 이교 로마 제국, 즉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음녀 바벨론은 기독교 로마 제국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4세기 이후 그리스-로마 문명은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나 4세기 기독교 문명의 탄생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치적 공로로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안겨 준 승리와 번영을 사랑한 자이다.

콘스탄티누스가 막을 연 기독교 시대를 뿌리에서부터 떠 받혀준 새로운 영웅들이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자들로 '사막 교부들' 혹은 '수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평신도들이었다는 점이다. 사막의 평신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성공과 부를 영혼을 고사시키는 독극물로 간주했다. 그들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막 기독교인들이 대거 출현한 덕에 4세기 기독교는 문명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 문명이란 사랑의 방향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려 했던 영혼의 움직임이 새로운 문명의 초석이 된 것이다.

1. 안토니오스- 초기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

270년 경 이집트 시골 마을의 예배당이였다. 스무 살이 채 안된 까무잡잡한 청년 하나가 교회의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때마침 독경자가 커다란 코덱스를 펼쳐놓고 마태복음의 한 대목을 읽고 있었다(마 19.16-22).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배당의 성소를 가득 올리던 그 말씀은 그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허공을 가르며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야 하늘나라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청년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불과 6개월 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2만 5천 평의 기름진 땅을 상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가 가까스로 출구를 찾은 사람처럼 이내 그의 마음에는 안도와 평온이 찾아 왔다. 사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등기한 후 마음이 편치 못한 터였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가'(마 4.22, 19.27, 행 4.34-35).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김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물려받은 땅에 흐뭇해하다니, 그는 자신이 땅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때마침 성소를 가득 올리던 말씀은 봄별이 눈을 녹이듯 그 동안의 마음의 괴로움을 녹였다. 그의 입에서는 어느 새 결단의 기도가 흘러 나왔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안토니오스, 로마가 다스리던 이집트 땅에서 흔하디흔한 이름이었지만 백옥 같이 순결한 그의 영혼만큼은 비교의 대상이 드물었다. 청년 안토니오스는 땅은 물론 갖고 있던 소유 전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첫걸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안토니오스는 기행(奇行)을 거듭했다. 마을 어귀에 홀로 살면서 짧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 장애물이 됨을 깨닫고 나서는 마을 밖에 위치한 공동묘지의 빈 무덤으로 거처를 옮겼다. 무덤 속은 격렬한 영적 투쟁의 장소였다. 갖가지 종류의 마귀가 때로는 환영이 아니라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 안토니오스를 공격하기도 했다. 범상치 않은 영적인 체험을 거듭했지만 안토니오스는 아직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삶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발길이 아예 닿지 않는 절대 고요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홀로 사랑하고자 갈망했던 것이다. 나일 강변 피스피르 산에 버려진 요새가 있었다. 사막 한 가운데 있던 이 요새는 산악 족속인 블렘미 족(族)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졌던 로마군의 옛 진지였다. 안토니오스는 사막에 있던 이 요새를 자신의 새로운 거처로 삼았다. 6개월에 한 번씩 친구들이 마른 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육체의 생명을 이어갔다. 그의 나이 서른다섯, 상속받은 토지를 나누어 준 지 15년이 지난 때였다.

본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런 이상한 삶은 안토니오스가 처음이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 여인을 사랑하여 하나 되고자 하는 본능적 사랑도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자연적 사랑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애착도 있다(눅 14.26). 그러나 안토니오스를 사로잡았던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말로 다할 수 없는 근원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을 사막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기독교가 문명이 되는 진정한 근원을 안토니오스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시대의 어느 누구도 영적인 사랑의 문제를 놓고 이토록 진지하고 지나치리만큼 결백하게 투쟁한 인물은 없다.

285년 그가 피스피르의 사막으로 들어간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권면을 받았으며 제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피스피르가 유명한 곳이 되자 안토니오스는 사막을 삼일 길이나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콜쭈 산의 오아시스에 새로이 거처를 정했다. 356년 105세로 세상을 떠날 때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사막에 그를 모방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자들이 줄을 지었다. 제자 중 대표적인 인물이 아문(혹은 암모나스)과 마카리오스다. 아문은 니트리아와 켈리아 사막에, 마카리오스는 스케티스에 공동체를 세웠다. 4세기 말 스케티스의 사막에만 4천여 명의 구도자들이 살았다고 한다. 사막이 도시가 되었다.

2. 새로운 전쟁(영적 전쟁) - 자신의 마음이 전쟁터

(소유욕과의 전쟁) - 390년 경 이집트 켈리아 사막에 ‘에바그리오스’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폰투스(신약성경의 ‘본도’ 지방)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두루 섭렵한 자였다. 이집트로 오기 전 동방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상류사회에서 스타로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그가 성공과 명성을 뒤로 하고 이집트에서도 거칠기로 유명한 켈리아 사막에까지 들어왔다.

어느 날 그에게 편지 한통이 배달되었다. 멀리 고향에 사는 동생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올리브 농장을 소유한 지주였다. 덕망이 두터웠고 신앙심도 깊어 몇몇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던 순회감독이기도 했다. 동생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적지 않은 유산을 형에게 상속해 놓았다고 부연했다. 동생의 전갈에 에바그리오스는 이런 답장을 남겨 놓았다.

‘일평생 나를 돌보아 주신 아버지의 혜은을 나는 잊을 수가 없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나를 배려하여 유산을 남겨 주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때에 이미 상속을 포기했다네...’

이 당시는 농업사회였고 부의 원천은 토지였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는 부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에바그리오스는 사막으로 들어오던 때에 안토니오스의 본을 따라 이미 상속을 포기했다. 우리는 유산상속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 이 시대의 사막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달리 생각했다. 그리스도와 소유를 함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마 6.24). 그리스도와와 사귀는 궁극으로 삼는 자에게 땅문서는 흠날리는 모래알갱이와 다를 바가 없다. 생계는 필사를 해서 이어가는 것으로 만족했다.

상속의 포기는 사막 기독교의 불문율이었다. 설령 이미 상속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막의 삶을 결단한 자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따라 대부분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카파도키아 삼위일체 신학의 대가인 바실리오스가 한 예가 된다. 그는 이미 상속받은 대규모 부동산을 수도자가 된 후 368-369년 대기근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다.

상속의 포기와 재산의 분배는 자신의 소유욕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마 19.21). 싸움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더 소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밖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을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이다. 하지만 사막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갖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 가장 시급한 영적 전쟁의 대상이었다. 돈을 삶의 안전판으로 여겨 흐뭇하고 든든하게 여긴다면 그런 영혼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행 8.20). 이 때문에 사막의 구도자들은 상속의 포기와 소유의 분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문으로 보았다.

상속의 포기, 소유의 분배로 표현된 소유욕과의 전쟁은 유대교나 그리스-로마 종교에는 없던 새로운 전쟁이다. 유대교는 땅과 돈에 가장 집착하는 종교 중의 하나다. 그리스-로마의 다신 종교도 신들에 대한 사랑과 소유욕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신들의 축복이라고 본다. 조선 유교도 다르지 않다. 조선의 지배자들은 장자가 제사를 주관한다는 명분으로 17세기 무렵 장자상속을 정착시켰다. 유교의 예배인 제사는 상속권과 결합되어 조선사회의 질서를 형성했다. 4세기 사막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사막의 기독교인들이 소유욕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데에 영성의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나라 유교는 제의와 소유욕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땅에 대한 욕망을 강화시켜 버렸다. 아직도 유교의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자 마귀를 내쫓아야 한다.

(지식욕과의 전쟁) - 소유욕과의 싸움은 사막 영성의 시작에 불과하다. 소유욕 다음으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욕과 지배욕이었다. 지식 자체는 권력이나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이 때문에 권력이나 돈처럼 지식도 중독이 된다.

로마 사회의 전형적인 출세 방식은 수사학과 법학 공부 이후에 황실 관료가 되거나 변호사, 수사학자 등이 되는 길이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수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소유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사막 기독교인들은 지식의 권력 지향적이며 자본 지향적인 속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스 세계의 지식을 두루 섭렵했던 에바그리오스는 사막에 정착해 살면서 아르세니오스라는 인물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이집트 농부들이 덕을 지니고 있는데, 학식과 지혜를 갖춘 우리에게 왜 아무런 덕이 없을까요?”

압바 아르세니오스가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네. 그러나 저 이집트 농부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 덕을 얻은 것이라네.”

세상과 달리 사막에서는 지식이 권력도 돈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남보다 더 알고 있다는, 그래서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는 허영과 교만 등의 악덕으로 직결된다. 지식은 사막에서조차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 때문에 사막 기독교인들은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입을 열어 말하거나 가르치는 법이 없었다. 가르침을 주는 경우라 해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정도이지 꼭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아야 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수록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사막 기독교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성경을 알면 알수록 허영과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조차 경계했다. 지식을 쌓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날의 가르침 속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불순한 것이 들어있지나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사막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얇이 아니라 눈물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지식은 그리스도에 맞서고 눈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이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야 입술

로 고백하는 사랑이 어찌 사랑일 수 있을까.

(지배욕과의 전쟁) - 안토니오스는 사막으로 들어가 홀로 그리스도를 대면했다. 이런 영성으로 인해 소유와 지식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재정립되었다.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다른 매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 있는 신부다. 각자는 이런 실존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타인에 대한 명령이나 지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사막의 평신도들은 명령이나 지배가 마귀의 도구라고 보았다.

이런 입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면화 되었다. 누군가 질문하기 전에 말하지 않는 것, 타인에게 화내지 않는 것 등이다. 소유를 포기한 자라 할지라도 타인을 가르치고 소유하고자 하는 유혹은 계속되었다. 이런 욕구는 '-해야 한다'는 당위의 말과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가장 쉽게 실체를 드러낸다. 타인을 소유하고자 하는 유혹의 절정은 '화'를 내는 것이다. 화는 가르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혹은 타인을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폭발하는 감정이다. 화는 마귀가 애용하는 무기로서 교만함을 부추기고 기도를 방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영적 삶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3. 새로운 전쟁 - 자신의 육체가 전쟁터

마음 외에도 싸워야 할 상대가 있었다. 자신의 육체다. 사막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싸움터로 간주했다. 육체를 갖고 사는 인간이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사막의 구도자들은 육체를 전쟁터로 삼았다. 구체적 전투의 대상은 식욕과 성욕이었다.

먹고자 하는 욕구는 살아 있는 생물의 자연스런 본능이어서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이 없다. 사막 기독교인들은 먹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정죄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더 많이,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런 욕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탐욕, 지배욕 등과 얽히고설켜 욕(欲)을 자극한다. 욕이 덤벼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욕망의 충족에 몰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식욕을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식욕을 제어함으로 육체의 동요와 영혼의 동요를 제어하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고자 한 것이다.

안토니오스는 며칠 씩 금식할 때가 많았으나 4세기 말경의 기독교인들은 하루 한 끼만 먹는 금식의 전통을 정착시켜 나갔다. 대식(大食)이나 소식(小食)이나, 금식이나 식음(食飲)이나는 영적 삶의 본질과 무관하다. 소식을 해도 탐식이나 미식에 사로잡힐 수 있고 금식을 해도 허영과 교만의 먹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제어함으로 욕의 욕(欲)을 삭여야 한다는 것이다. 욕의 욕을 삭이므로 지배욕, 소유욕 등을 배설해야 한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건축이나 입시, 사업이나 직장 등 가시적인 목표를 놓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다. 사막 영성의 금식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사막의 평신도들은 자신의 욕구를 이루어 주십사 원하며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비워내기 위한 방편으로 금식을 이용했을 뿐이다.

4. 사막에서 세상 속으로

그런데 교회의 성직자들은 사막에서 벌어지는 평신도들의 영적 전쟁을 곱게 보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도시에 가득한데 굳이 사막에 들어가서 평신도들만의 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성직자들의 허락도 없이 평신도들이 제 마음대로 공동체를 만들어도 되는가. 그럼에도 사막의 구도자들은 평신도들의 교회를 고집했다. 그들은 교만의 위험 때문에 성직을 극도로 경계했다.

사막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성직 안수에 부정적이었다. 이미 안수 받은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공동체의 질서는 안수의 유무와는 무관했다. 이집트 사막의 공동체들은 평신도들에 의한 평신도들의 모임이었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은 사막에 살던 형제들이 안수를 받고 성직

자가 되는 것을 은연중에 비판한다. 사막 기독교의 영성은 성직자로 안수 받으려는 유혹을 허영과 교만의 마귀에게 굴복당한 것으로 간주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막의 영성이 지중해 세계 속에서 기독교 문명의 기반이 될 수 있었을까. 사막을 허파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체내를 돌아 혼탁해진 피는 허파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몸 전체에 퍼진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위해 사막에 들어왔던 자들이 사막에서 세상적인 것을 정화한 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세상으로 되돌아오면서 사막의 영성은 사람 사는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이 당시 감독(주교)의 선출은 형식적으로는 성직자단의 투표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 시민들은 깨끗한 마음과 놀라운 은사를 지닌 사막의 평신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안수받기를 원했다. 4세기 중반 이후 상당수의 감독들은 수도적 삶을 경험한 인물들이었다. 초대교회사에 알려진 4세기 인물 중에 수도자 출신이 아닌 자는 드물다. 이런 흐름을 확고하게 한 것은 392년 호노리우스 황제의 법이다. 호노리우스 황제는 수도자 중에서 성직자를 선출하도록 법률을 공포했다. 4세기 초반 이후 사막의 평신도들이 성직자가 되던 흐름이 4세기 말에 와서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사막의 평신도 운동이 기독교 세계에서 인정받았음을 대변한다.

사랑을 찾아 사막으로 들어갔던 평신도들의 영성이 사회 속에 스며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막의 구도자들은 사회 속으로 되돌아와 병원을 설립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헌신한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 때문이었다(마 25.31-40). 최초의 병원은 320년대에 파코미오스 수도원 안에 만들어졌다. 이후 35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교회는 본격적으로 병원을 설립 운영한다.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교회의 감독들은 하나같이 수도적 삶을 경험한 자들이었다. 이 당시 병원은 고아원, 양로원, 빈민구제소, 여행객을 위한 숙소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원은 물론 수도자 개인이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원은 사막에만 머물지 않고 아예 도시 속에 세워진다. 이런 현상은 350-370년대 동방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5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교회와 수도원의 위계질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모든 수도원은 해당 지역 교회 감독의 권위 아래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사막에서 태어난 평신도들의 교회는 약 1세기만에 기존 교회의 틀 속으로 완전하게 편입되었다.

로마 시대의 건축물 중 눈에 띄는 것은 목욕탕과 원형경기장과 계단식 극장이다. 이런 건축물은 로마 문명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4세기 기독교 문화혁명의 시대 이후 특징적인 건축물은 교회와 수도원과 병원으로 바뀐다. 이런 건축물의 탄생은 4세기에 생겨난 사막의 평신도 영성에 빚지고 있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자 한 평신도들의 사막 영성은 4세기 기독교 문명을 낳은 모태이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혹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갈망하지나 않는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려는 다짐이 생긴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수도적 영성과 전통이 개신교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

남성현(한영신대 신학과 교수)

초대교회 수도적 영성에도 갈래가 있다

수도원의 시초가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안토니오스, 바실리오스 같은 위대한 수도자들이 이 시대의 인물인 것 정도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도적 삶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건 그리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그 갈래가 어떠한 간에 관계없이 공통의 분모가 있다. ‘복음적 가난’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혼’이다.

‘복음적 가난’의 바탕이 되는 말씀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은 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구절이다(마 19.21). 4세기의 진지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 전부를 나누어 주었다. 이 시대는 예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복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이런 가난을 ‘복음적 가난’이라고 부른다.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워온 우리들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또 다른 공통분모는 ‘영적 결혼’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물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눅 14.26)는 말씀(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혼으로 이해되었다. 영적 결혼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아예 시민적 결혼을 거부하고 홀로 살아가는 독신의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독신’은 수단에 불과하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결혼’이 진정한 목적이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

장 21절이나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4세기의 진지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1장 18절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4세기가 독특한 영성의 시대인 것은 바로 이 두 구절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삶이 재편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시대와 문화도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여기까지다. 이런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마다 시기마다 색다른 열매가 나타난다. 4세기 기독교 영성이 만개할 때의 다양성을 논하자면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이 글에선 4세기에 나타난 두 가지 수도적 삶의 양상을 간략하게 구분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수도적 삶의 근원은 안토니오스를 비롯한 이집트 사막교부들이다. 사막교부 전통은 ‘수도원’ 영성과는 큰 괴리감이 있다. 사막교부들의 영성과 울타리를 갖춘 조직적 수도원 사이의 괴리감은 루터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대립과 엇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루터와 칼빈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지만 많은 점에서 대조적인 것처럼, 사막교부와 수도원은 공통의 분모를 갖고 있지만 대립적인 면도 적지 않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과 <파코미오스의 생애>를 흘깃 결눈질만 해도 두 경향 사이의 거리감은 행간에서 불쑥 나타날 것이다. 사막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배욕이다. 그들은 사막의 집단 주거지에서 서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살았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우주적 과업으로 삼았다. 그들은 타인에게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의 규범이나 규칙 따위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규칙이 되어 살았다. 제자들이 질문에 오는 한에서만 대답하고 질문이 없다면 권면이나 가르침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파코미오스는 다르다. 그는 사막교부처럼 시작했으나 몇 년 되지 않아 혁신을 시도했다. 울타리를 만들어 외부와 차단되고 격리된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고, 새로운 공간 안에서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규범, 소위 ‘규칙’이라는 걸 발명해 냈다. 이렇게 하여 323년 이집트의 버려진 마을 ‘타벤네시스’에 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수도원이 만들어진다.

사막교부들과 파코미오스 수도원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루터주의와 칼빈주의의 역사를 떠올리면 답이 나온다. 사막교부들이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수도원의 ‘규칙’을 좋아할 리 없었다. 또 파코미오스 수도원은 수도원대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없이 그저 나날을 소일하는 사막속의 기독교인들을 평가절하 했다.

사막교부들은 기독교 역사상 눈에 돋보이는 특이한 영적 측면을 갖고 있다. 돈 그 자체를

탐욕이나 마귀로 정죄하는 영성이다. <안토니오스의 생애>에 보면 주인공이 길을 다다 금덩이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온다. 안토니오스는 악한 자의 간계를 알아채고 마귀를 혼쫓는다. 이내 금덩이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에도 비슷한 방향의 이야기들이 여럿 등장한다. 물질은 그냥 그 자체로 마귀다. 역사상 이집트 사막의 기독교인들처럼 돈을 혐오한 기독교인들은 없다.

하지만 교회나 수도원은 다른 논리를 갖고 있었다. 돈은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잘못 사용할 때라야 악하게 된다는 논리다. 돈 그 자체의 가치는 중립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효용에 입각해서 선과 악을 평가하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안토니오스나 에바그리오스 등 사막 깊숙한 곳에서 말씀 앞에서 홀로 자신을 대면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논리였다.

안토니오스적 영성, 그러니까 이집트 사막교부들의 영성은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사막에 살지는 않았으나 사막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흠모하던 동방과 서방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런 자들을 통해 사막의 영성이 면면히 역사 속에 녹아들었던 것이다. 위-디오니시오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무지의 구름>, 십자가의 성 요한 외에도 많은 영성가들은 차근차근 짚어보면 넓은 지평에서는 안토니오스의 후예들이다. 뿐만 아니다. 중세의 '일곱 가지 악덕'(七邪念)은 실상 4세기 이집트 사막 영성의 팔사념(八邪念)의 재판(再版)에 불과하다. 중세문학과 근대 문학, 현대의 기독교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서양문학에 이런 영성이 결여된 경우는 드물다.

4세기 수도적 영성의 두 번째 양상은 문자 그대로의 '수도원'이다. 이미 앞에서 파코미오스 수도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파코미오스 수도원과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4세기 수도원을 꼽으라면 바실리오스의 수도원을 들 수 있다. 파코미오스의 수도원은 이집트 최초의 수도원,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최초로 나타난 수도원이었다. 파코미오스가 세상을 떠나던 346년 이미 11개의 지수도원이 연합한 형태로 연방수도원을 구성하고 있을 정도였다. 소아시아 수도원은 3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바실리오스가 남긴 <수도규칙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파코미오스의 수도원과 바실리오스의 수도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난다. 여기에서 그런 차이를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중요한데, 이들 최초의 수도원들은 우리가 '수도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제들의 모임', 혹은 '형제들의 교회'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복음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살았던 것이다. 바실리오스는 자신들의 단체를 'brotherhood'라고 명명했다. 우리말로는 '형제단(兄弟團)' 정도로 번역하면 적당하다.

파코미오스나 바실리오스는 공동생활이 구원의 첩경이요 가장 복음적인 길이라고 믿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생활은 사막수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 공동생활 속에서의 '순종'이다. 자신의 의지와 타인의 의지가 충돌할 때, 자신의 뜻과 공동체의 뜻이 충돌할 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야 한다. 이들 공주(共住) 수도주의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비우는 훈련이야말로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재조직해 놓은 해석되고 적용된 복음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비우고 규칙을 지킨다는 건 공동생활 속에서 성경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동의어였다. 은수(隱修) 사막교부들은 울타리 안의 규칙을 영혼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독약으로 보았지만, 공주 수도전통은 규칙이야말로 복음을 따른 길이라고 보았다. 공주(共住) 수도주의와 은수(隱修)주의가 얼마나 대립적인지는 이점에서도 분명하다.

수도원은 기독교 역사, 아니 유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 되었다. 프랑크 족의 역사에서 수도원은 국가기관 비슷한 성격을 지녔고, 교육과 학문과 사회의 중심이었다. 중세의 절정은 수도원의 절정이었고 중세의 쇠락은 수도원의 쇠락이었다. 수도원의 몰락을 촉진한 건 루터를 비롯한 환속한 옛 수도자들이었다.

수도적 영성으로 기독교 로마제국이 탄생하다 !

수도주의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아직도 팽배하다. 세상 속에 살아야지 세상과 담을 쌓고 갇혀 사는 건 잘못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사막으로 들어가 홀로 수실에 갇혀 지내는 건 빈둥거리며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냐고 하기도 한다. 이런 비판이나 비난의 중심에는 ‘효용’이나 ‘효율’ 같은 현대적 가치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던가 혹은 무얼 만들어 내던가 해야지, 가만히 앉아 기도한다고 하며 왜 시간만 허비하냐는 식의 따가운 눈총이 수도적 삶을 겨누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솔직해 보자. 누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인류는 기계를 만들고 민주적 시민사회를 확산시켜 사회의 진보를 일구어 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욕심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세상의 탐욕과 다툼이 사그러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같다. 문명사회는 인간의 탐욕을 말초적으로 흥분시키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탐욕의 충족을 위해 몸부림친다. 집단이나 국가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뒤질세라 목소리를 높이고 수단을 강구한다.

기계문명의 잣대로 수도적 삶이 비판받는다면 나는 오히려 그 기계문명의 잣대로 수도적 삶의 ‘효용’을 강조하고 싶다. 수도적 영성으로 타인을 바꾸는 건 어렵고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수도적 영성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집트의 무식한 농부들이었던 사막 교부들이 우려를 받는다면 그건 그들이 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자 고집했기 때문이다. 옛 델포이의 신탁에도 있듯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겠는가. 그런데 사막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씀과 친구약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낱알이 드러내고자 했다. 세상에 살면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에 이들은 아예 사막으로 들어가 자기를 해부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막교부들이 수도적 삶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에 남아 있는 일화들은 이집트의 무식한 농부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용서와 온유가 도처에서 번득인다. 도시 로마의 귀부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이집트 사막에 와서 수도자들을 만나고자 했던 건 당시 지중해의 어디에서도 이들 같은 인물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팜마키우스 같은 로마원로원 의원이 수도자가 된 것도, 파울라 같은 로마의 귀부인이 수도적 삶을 택한 것도, 믿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 가는 기쁨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이다.

사막의 수도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낸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서 떨어지는 수정 같은 눈물은 세상의 영혼이었다. 아르세니오스 같은 수도자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아예 가슴에 손수건을 대고 일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그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궁전에서 두 왕자를 가르친 철학자였다. 그런 그가 이집트 사막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4세기에 이집트의 사막보다 더 효용가치가 높은 장소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다.

4세기 초반 개화한 수도적 영성은 4세기 말엽 기독교 세계를 완전히 삼켜 버린다. 동시에 일천년간 이교 문화를 갖고 있던 로마제국은 4세기에 기독교 로마제국으로 탈바꿈한다. 천년동안 이교문화권이었던 로마제국이 약 70년 만에 기독교제국으로 변한 건 오늘날 역사가의 눈에도 신비스럽게 다가온다. 분명한 건 기독교 로마제국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노방전도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소위 ‘선교마인드’ 때문도 아니다.

4세기 기독교 로마제국의 탄생은 ‘수도적 영성’의 공로로 돌리고 싶다. 복음 안에서 자기됨의 현주소를 찾으려는 마음의 흐름이 여름 장마철에 포효하는 급류처럼 여기저기 쇄도했기에 기독교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수십 권의 책으로도 이걸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4세기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을 살펴보면, 이집트 사막에서 흘러나왔던 광야의 소리가 없었다면 4세기의 기독교 제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된다.

타인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에서 내가 바뀌면, 그리고 그런 변화가 파도처럼 일어나면 세상의 많은 것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일이 4-7세기 기독교 문명의 탄생에서 생겨났다. <안토니오스의 생애>를 다시 뒤적이고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을 다시 펼쳐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이다.

개신교와 수도적 영성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 인정받는 수도자였다. 그런 그가 수도원을 공격하고, 수도자들을 결혼시키더니, 급기야 그 자신도 수녀원에서 도망쳐 나온 카타리나 폰 보라와 1525년 결혼했다. 루터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 그가 과연 결혼할까 반신반의하던 상태였다. 루터와 카타리나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둘 사이에서 여섯 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또 두 부부는 경제관념에도 밝아 루터가 세상을 떠나던 무렵 그의 가정은 비텐베르크 시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던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루터의 일생을 이런 시각에서 정리해 보면 루터가 수도주의의 어떤 측면을 공격했는가를 알 수 있다. 루터가 반대한 건 무엇보다 '독신서언(수도서언)'이었다. 중세 교회법은 수도자로서 서언을 하면 적법한 결혼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평생을 여자 없이 지낼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고, 이는 중세의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가지 성적 일탈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에 따라서는 사제의 동거비율이 60%가 넘는 지역도 있었다. 루터는 수도서언, 즉 독신서언이 성경에 없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1525년 그 자신의 결혼을 통해 이를 실천해 보였다. 루터의 결혼 이후 종교개혁 진영은 결혼을 교회법이 아니라 민법의 영역으로 옮겨 다듬는 데에 많은 공을 들인다.

루터 부부가 경제관념에 다소 밝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3세기에 탁발수도회가 생긴 이후 많은 수도자들이 구걸을 미덕으로 생각했다. 탁발수도회가 확장되면서 이런 현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한창 일할 젊은 나이의 청년들이 구걸을 하며 빈둥거리는 모습이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탁발수도회는 전통적인 수도원처럼 농촌기반이 아니라 도시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였다. 때문에 파코미오스-바실리오스-베네딕트-클뤼니로 연결되는 '노동과 기도'의 결합이 탁발수도회에 이르러 흔들리게 된다. 4세기 수도원전통은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원칙을 확립했지만, 탁발수도회에 이르러 '손노동=기도'의 원칙이 거의 폐기된 것이다. 루터 부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 재산을 늘려간 것은 '노동과 기도'를 결합시킨 초대 교회의 수도적 전통에서 이해할 수 있다.

루터의 결혼과 사적 소유는 개신교와 수도적 영성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4세기 수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독신을 선택했지만, 개신교 전통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결혼하는 편을 택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이다. 물론 루터는 일평생 홀로 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인정했다. 하지만 독신의 서언은 그 자체가 성경에 위배된다고 보았기에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결혼함으로써 확신을 실천에 옮겼다.

가정이 만들어지면 '가난'은 상처를 낳고 질병으로 번진다. 루터 부부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는 인세를 받지 않고 교수 월급만을 받았으며, 부인은 집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재산을 늘려갔다. 루터는 이미 97개 조문에서 면죄부를 사는 데 돈을 쓰지 말고 가정의 필요를 위해 저축을 권면한 바 있다. 칼빈주의자들 역시 노동과 기도를 결합시키는 4세기 수도적 삶의 양식을 수용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기독교적인 삶의 양립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듯 종교개혁은 결혼과 사적 소유를 허용했기에 수도원의 쇠락을 앞당겨 놓았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아니었어도 수도원은 쇠락했을 것이다. 중세후기 이후로 평신도 전문가 집단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들 평신도 전문가는 중세 수도원이 담당하던 많은 것들을 하나 둘 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따라서 학문과 법과 의학의 중심지였던 중세의 수도원이 기우는 건 역사의 흐름이었다. 그런 수도원이 오늘날 부흥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대학과 병원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질문은 '수도적 영성'이 개신교적 삶의 틀인 결혼과 사적 소유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며, 가정의 필요를 위해 재산을 쌓아가는 것과 수도적 영성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4세기 기독교 전통 속에 탄생하고 전개되었던 수도적 영성이 과연 현재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이 문제는 수도적 영성이 무엇인가와 관련 있다. 앞에서 필자는 수도적 영성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했다. 수도적 영성은 가시적으로 무얼 보여주는 것도 없고, 당장의 필요를 위해 무얼 만들어 내지도 않는다. 오로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거울삼아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눈물 흐리며 기도하는 것이 수도적 영성의 출발에 해당한다. 이런 영성이 열매 맺게 되면 타인 위에 우뚝 서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오만을 회개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를 섬기게 된다(마 25.35이하). 이런 영성이 열매 맺게 되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동일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지키게 된다. 이런 영성이 열매 맺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발아래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간청하게 된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신랑으로 모셔 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갖지 못한 것이다.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 거의 아무 것도 없다 해도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 들이면 천하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집트의 사막 수도자들이 조심스럽지만 우직하게 걸어갔던 이 길이 개신교가 추구하는 길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영적 전쟁의 이론가 에바그리오스

남성현(한영신대 신학과 교수)

중국에는 손자병법이 있지만 기독교 제국에는 에바그리오스가 있다. 둘 모두 전쟁론에 대해 서술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쟁의 양상은 정반대이다. 손자는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 썼지만 에바그리오스는 인간의 내면을 위협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서술했다. 손자병법과 에바그리오스의 저술은 유교문화와 기독교문화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자는 외적인 승리가 목표인 반면 후자는 영적인 승리가 궁극의 목표다.

폭을 좀 더 넓혀서 공자, 맹자, 한비자 등과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등의 기독교 사상가들과 비교해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공자와 맹자의 왕도정치이든 한비자의 현실주의적 정치이든 한자문화권은 정치를 통해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기독교 사상가들에 따르면 가시적 세계의 정치는 필요악에 불과하며 절대선인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다. 서구 기독교 세계가 한자문화권에 비해 우월하다면 그런 우위는 동양종교의 내재성에 대한 기독교의 초월성에 기인한다.

4세기 기독교의 문화혁명에서 에바그리오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안토니오스 이후의 사막 영성이 그의 손끝을 통해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안토니오스는 기독교의 투쟁을 외부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투쟁으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하지만 안토니오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일생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오스를 통해 기록되었을 뿐이다. 안토니오스 이후 두 세대 만에 에바그리오스가 혜성처럼 이집트 사막에 등장하였다. 에바그리오스는 위대한 세 명의 카파도키아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제자이다. 인간 내면을 향한 이집트 사막의 영적 투쟁이 에바그리오스에 의해 섬세한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에바그리오스가 체계화한 영적 전쟁의 이론은 중세를 거쳐 근현대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서양 사람들이 유교문화권에 비해 선과 악의 이분법에 훨씬 민감한 것은 에바그리오스의 덕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 상류사회를 만끽한 에바그리오스

에바그리오스가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는 투박한 시골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에바그리오스는 당대에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취향을 가졌던 인물이다. 청년 에바그리오스는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 옷을 사랑하던 신세대 젊은이였다. 거친 면(綿)이나 투박한 모(毛)에 비할 수 없는 비단의 우아함과 부드러움은 로마인들을 매료시켰다. 에바그리오스도 그 대열에 끼여 이 합류했던 것이다. 그런데 비단으로 만족하지 않고 값비싼 포도주에 몸을 맡기곤 했다. 동시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언어를 사랑하던 시인이었다. 가장 문명화된 세계를 즐기던 그가 어떻게 거칠고 황량하며 사람 살 곳이 못되는 비문명의 심장부, 사막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에바그리오스는 345년경 소아시아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카파도키아의 대(大)신학자 바실리오스 밑에서 수학한 이후 379년경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간다. 수도에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가 있었다. 그레고리오스는 바실리오스와 함께 교회의 큰 기둥을 이루었다. 이들은 카파도키아의 위대한 삼위일체 정통주의 교부라고 불린다. 에바그리오스는 그레고리오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함께 신학적 작업도 하는 등 그레고리오스의 제자이자 동료로서 활동한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에바그리오스는 삶의 달콤함을 만끽하지는 못했다. 그가 로마 상류귀족들의 취향에 본격적으로 빠져들어 간 건 그레고리오스가 떠난 다음의 일이다. 그레고리오스가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직을 사임하자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난감해졌다. 대(大)신학자였던 그레고리오스의 후임자 인선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황제 폐하, 경건하고 신학적 소양을 갖춘 사제들은 안디옥에도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습니

다. 무얼 망설이십니까?” 동방의 감독들은 이렇게 황제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테오도시우스의 생각은 달랐다. 황제는 삼위일체 정통주의를 지지할 뿐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를 통합할 수 있는 강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원했다. 황제의 낙점을 받은 사람은 정치가 출신의 평신도였다. 이름은 넥타리우스, 관료직의 정점인 오리엔스 감영의 정무총감(오늘날의 국무총리 격)을 지낸 인물이다. 넥타리우스의 등장과 함께 에바그리오스는 일약 콘스탄티노플의 스타로 떠오른다.

평신도가 하루아침에 큰 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던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이 당시의 감독직은 선출직이었고 안수하면 취임이 가능했다. 넥타리우스는 능력을 갖춘 관료였지만 신학에 무지했고 이 때문에 조력자를 필요로 했다. 신임 감독을 돕는 데에는 에바그리오스가 안성맞춤이었다.

“넥타리우스여, 에바그리오스를 주목하십시오. 그대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레고리오스는 감독직에서 물러나 낙향하면서 후임 감독에게 이런 조언과 부탁을 남겼다.

에바그리오스는 이런 추천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신학적으로도 조예가 깊었고 사상을 탁월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사학도 갖추었으며 안수 받은 사제이기도 했다. 이 당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삼위일체 신앙을 정통주의로 공포하였고 아리우스파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을 바른 길로 설득하려고 했다. 새로이 감독이 된 넥타리우스가 신학에 무지하였기에 공은 에바그리오스의 손에 넘어왔다.

에바그리오스는 명료한 개념과 풍부한 수사학으로 토론회에서 이단들을 제압해 나갔다. 명성이 높아가면서 상류사회 여성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에바그리오스는 여성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었다. 비단옷을 사랑하는 우아한 취미도 있고 여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재치와 센스도 있으며 공식석상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한 어조로 상대를 움짱달짝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적 지혜와 덕망도 있었다. 사람들은 에바그리오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고 일개 사제에 불과한 그는 순식간에 유명인사로 급부상했다. 무게감 있는 연회와 중요한 공식석상에 에바그리오스는 삼위일체 정통주의를 대표하는 자로 초대되었다.

독신이던 에바그리오스도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훗날 사막에서 기도에 전념할 때 에바그리오스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성가대에서 노래하던 여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곤 했다. 그런데 유독 에바그리오스의 눈에 들어왔던 한 여인이 있었다.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아프로디테를 닮은 듯한 자태에 품위와 교양이 배어나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독을 머금은 꽃처럼 이 여인과의 사랑은 위험한 것이었다. 결혼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남편은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총감을 지낸 자로 황실고문단에 속해 있었다. 황실의 권력서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자였다.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위험수위를 넘나들었다. 그러나 유부녀와의 사랑, 그것도 남편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자라면 사랑의 한계는 명백하다. 만약 이들의 사랑이 꼬리가 밟혀 실체가 알려진다면 권력도 로마법도 남녀 양자를 내버려 둘 리가 없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여인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에바그리오스에게 다가왔다. 관계의 주도권도 여인에게로 넘어 갔다. 여인은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태세로 돌진했다. 하인을 시켜 에바그리오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연인의 삶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았다. 또 할 수 있는 한 에바그리오스 옆에 두고자 했다.

이런 연정에도 에바그리오스는 냉철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런 관계의 종말이 양자 모두에게 파국이라는 걸 분명하게 그는 분명하게 인식했다. 하지만 연정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종결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냉철한 이성도 쉽사리 답을 주지 않았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에바그리오스는 꿈을 꾸다. 이 꿈을 훗날 친구이자 제자인 팔라디오스에게 말해주었다. 꿈의 내용은 이러하다.

여인의 남편이 보낸 병사들이 에바그리오스의 집을 덮쳤다. “에바그리오스가 저기 있다. 그를 체포하라.” 에바그리오스는 밧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으로 끌려갔고 투옥되었다. 목에는 칼이 드리워졌고 팔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감겼다. 병사들은 에바그리오스가 왜 체포당해 투옥되었는지 단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에바그리오스는 전(前) 수도총감의 지시인 걸 알고 있었다. 잔인한 고문을 받은 죄수들은 보면서 에바그리오스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천사가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에바그리오스에게 말을 걸었다.

“자넨 왜 투옥 당했나?”

“모르겠어. 전(前) 총감이었던 자가 나를 시기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 간수가 돈을 받고 채찍으로 날 때릴까봐 두려워.”

“콘스탄티노플에서 도망치는 건 어쩐가. 이 화려한 도시를 떠나면 자넨 안전할 거야.”

“안전할 수만 있다면 도망이라도 치고 싶어.”

“복음서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그래. 맹세하지.” 에바그리오스는 꿈속에서 복음서 위에 손을 얹고 맹세했다. “나 에바그리오스는 내일 아침 이른 새벽 콘스탄티노플을 떠난 후 수도자가 될 것임을 복음서 위에 손을 얹고 엄숙하게 맹세한다.”

에바그리오스의 꿈은 여기에서 끝났고 꿈에서 깨어났다. 비록 꿈속에서 한 맹세이지만 복음서를 놓고 한 맹세이기에 그는 주저 없이 도망을 결심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도 있었다. 혹 간통죄로 고발당한다면 모진 고문에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다. 여인의 경우도 최소한 섬 유배형을 받게 된다. 남편의 시기와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죽음을 대가로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새벽녘 아직 동틀 무렵 그는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예루살렘에는 라틴 신학자 루피누스와 로마의 귀부인 멜라니아가 남자와 여자를 위한 수도원을 설립하여 살고 있었다. 두 인물 모두 교양과 학식을 갖추었고 서방 세계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에바그리오스는 예루살렘의 수도원에 도착했다. 그런데 비록 몸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다. 육체적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그는 오히려 떠나왔던 도시를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단옷이 그 증거다. 예루살렘 감람산의 수도원에 살면서도 그는 여전히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또 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병이었다.

에바그리오스는 열병에 걸렸다. 열병은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의 살과 뼈가 타들어 갔다. 정성스럽게 에바그리오스를 간호하던 멜라니아는 이 병의 근원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에바그리오스를 다그쳤다.

“아들아! 너의 이 오랜 병치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

“무얼 숨기고 있는지 내게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병은 낫지 않을 게다.”

에바그리오스는 멜라니아의 추궁에 꿈속에서 맹세한 것을 털어놓았다. 얼마 후 병은 씻은 듯 나았다. 383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에 에바그리오스는 드디어 비단옷을 벗고 수도복을 입는다. 에바그리오스에게 수도복을 입혀준 자는 루피누스였다. 아울러 에바그리오스는 부유한 지주였던 아버지의 상속권을 포기한다.

거룩한 땅 예루살렘은 에바그리오스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했다. 수도복을 받은 에바그리오스는 예루살렘을 떠난다. 그가 택한 이민의 장소는 현자들의 땅 이집트 사막이었다. 니트리아의 사막에서 2년을 산 후 가장 깊은 사막 켈리아로 들어가 14년 간 살면서 사막의 영성을 체계화한다.

가장 화려한 삶을 맛보았던 학자 에바그리오스는 로마제국에서 가장 거칠었던 켈리아의 사막에서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 기독교 사상의 이론가였던 에바그리오스는 배움이 없던 이집트 기독교인 농부들의 콥트 영성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안토니오스가 마주한 극단적인 영적 경험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에바그리오스의 손끝을 통해서 체계화되었다. 그의 마귀론은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책보다도 더 깊게 유럽 기독교의 동맥에 찬연히 녹아 있다.

그가 겪어야 했던 인생의 모순은 영서(靈書)를 위한 도구였다. 에바그리오스는 기독교 세계가 간직하게 될 영적 전쟁의 이론서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도구로 삼았던 섭리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쓸쓸이 죽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했기

에 순전한 기쁨 속에서 세상에 작별을 고할 수 있었다.

2. 사막 영성을 체계화 시킨 학자 에바그리오스

이집트 사막은 4세기 기독교 영성의 고향이다. <안토니오스의 생애>과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 그리고 에바그리오스의 저술은 모두 이집트의 사막 기독교 영성의 열매이다. 이런 작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에바그리오스의 저술이다. 여타의 작품은 체계화 된 이론을 제시하지 않지만 에바그리오스의 저술은 사막 영성을 체계화 했다. 이집트 사막 영성이 소아시아 출신의 학자 에바그리오스에 의해 체계화 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집트 사막에는 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학식을 갖춘 자는 드물었다. 사막 영성은 조직적인 체계 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다. 반면 동방 기독교 세계는 이 당시 교리논쟁에 몰두하였고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자들은 드물었다. 그런데 삼위일체 논쟁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학자 에바그리오스가 이집트의 거친 사막으로 들어와 현자들의 깨달음을 피부로 접했고 그 결실로 사막 영성이 체계화되었다.

에바그리오스와 아르세니오스의 대화는 문자적 지식과 영적인 현자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아르세니오스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궁정에서 호노리우스와 아르카디우스 등 두 왕자를 가르치던 황실교사였다. 후에 그는 황실의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니트리아의 사막으로 가서 여생을 보냈다.

하루는 에바그리오스가 아르세니오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저 이집트 농부들이 깨달음의 덕을 지니고 있는데, 학식과 지혜를 이토록 갖춘 우리는 어째서 아무런 덕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아르세니오스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는 게 없지요. 그러나 저 이집트 농부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 덕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스적 교양과 기독교적 지혜를 두루 갖춘 당대의 학자들이 사막에 살던 이집트 농부들에게서 느끼던 바가 이 간결한 대화에 압축적으로 녹아 있다. 학문을 쌓고 성경에 통달해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얻는 게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깨달음이었다. 문자적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모질고 거친 사막에 들어와서야 깨닫게 되는 걸 보면 인간의 지식은 구원의 장애물인 게 분명하다.

에바그리오스와 사막의 현자가 남긴 다른 대화도 있다. 에바그리오스가 콥트 농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지 한 말씀 주십시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만날 때 질문 받기 전에는 말을 꺼내지 마시오.” 이 말에 에바그리오스는 놀라 옆드리며 말했다.

“나는 실로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바그리오스의 말이 옳다. 사막 현자들의 에토스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사막의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다. 지식이 산업이 된 오늘날 역설적으로 사랑과 구원에서 더 멀어졌다. 사막의 콥트 영성은 우리의 교회가 무얼 해야 하고 오늘날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웅변해 준다.

에바그리오스가 정리한 사막 영성의 에토스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사막 영성, 아니 에바그리오스의 영성은 사랑의 문제로 집약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인간은 사랑을 위해 부름 받았다. 사랑은 단순하다. 하지만 어렵다. 욕(慾)과 화(火)가 영혼의 중심을 흐려놓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욕망한다.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 갈망으로 영혼이 채워져야 하는데, 욕을 위해 먹고, 입고, 마시고, 소유하는 데에 중독되어 있다. 욕망으로 중독된 영혼은 괴롭다. 육체의 소욕은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채워지지 못한 영혼은 화기(火氣)로

얼룩진다. 갖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배하지 못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마귀와 싸우라고 주신 화(火)인데 마귀와 싸우지는 않고 사람과 싸운다.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욕(慾)과 화(火)로 얼룩져 있기에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에서 멀어져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욕(慾)을 정화하고 화(火)를 다스려야 한다.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아인식이다. 자신의 욕과 화를 직시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한 영혼은 정화되지 않는다. 자신을 알게 되면 정화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욕(慾)과 화(火)로부터 해방되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욕과 화를 제어할 수 있다. 욕망과 화를 제어한 결과 사랑에 이른다. 이 때가 되어서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욕(慾)과 화(火)를 제어하여 사랑에 근접했을 때라야 타인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타인을 가르친다면 그런 자의 영혼은 파멸에 이른다.

3. 에바그리오스의 마귀론 혹은 사념론

에바그리오는 플라톤의 심리학 이론을 빌려 사막 영성을 체계화 하였다.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다. 화(火)를 만들어내는 화처(火處, thymos), 욕(欲)을 만들어 내는 욕처(欲處, epithymia), 그리고 사고와 판단의 중심인 지성(知性) 등이다. 에바그리오는 플라톤적 영혼의 삼분법을 기독교적으로 수용한다. 화처(火處)와 욕처(欲處)는 영혼의 동요하는 부분으로 비이성적인 것이다. 반면 지성은 판단의 기능을 하는 이성적 부분인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중심이다.

화처(火處)의 본래적인 기능은 마귀에 화를 내는 것이고, 욕처(欲處)의 본래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죄 이후 인간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갈망함으로 지성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졌다. “화처(火處)가 요동치면 지성(知性)이 마비되고, 욕처(欲處)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 보이는 대상에 눈이 멀게 된다.”

화처(火處)와 욕처(欲處)는 서로 얽히고설켜 여덟 가지 사악한 생각을 만들어 낸다. 탐식, 부정(不貞), 탐욕(돈을 사랑함), 분노, 슬픔(우울), 태만(게으름), 허영, 교만 등이다. 탐식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사념(邪念)이고 교만은 가장 지독한 사념이다. 여덟 가지 사념(邪念)은 여덟 가지 마귀이기도 하다. 그래서 에바그리오스가 논하는 팔사념(八邪念)은 마귀론이기도 하다. 에바그리오는 사념이라는 단어와 마귀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혼용한다. 영혼이 악한 생각을 할 때에 마귀는 그런 악한 생각을 타고 영혼을 공격한다. 또 마귀의 공격으로 영혼은 악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에바그리오스의 팔사념 중 허영과 슬픔(우울)은 중세에 이르러 시기(질투)로 바뀌면서 칠대악덕(七大惡德)이 되었다.

에바그리오스의 팔사념론(八邪念論) 혹은 마귀론은 중세를 거치면서 서구 기독교 세계의 정신에 깊이 스며들었다. 4세기 이후 서구 신학과 문학은 마귀와 악을 묘사할 때 에바그리오스의 범주를 사용했고 그 결과 서양인들은 마귀(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관념을 공유하게 되었다. 서양 사람들이 선악의 구별에 민감한 것은 서양문화가 에바그리오스의 마귀론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에바그리오스의 마귀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조선 유교나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먼저 사막 영성은 탐식과 교만이 서로 직결된 죄악이라고 파악했다. 에바그리오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에 대해 쓰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탐스러운 열매에 유혹받아 굴복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포로가 되었다. 가장 낮은 마귀인 탐식의 마귀에게 굴복하는 즉시로 가장 악독한 교만 마귀의 먹이로 전락한다. 에바그리오스의 해석은 이집트 사막 기독교인들이 널리 공유하던 생각이었다.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을 펼쳐들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흔하게 나오는 걸 보게 된다. 대부분의 일화는 어떻게 음식을 절제할 것인지, 소박하고 단순한 음식을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지를 다룬다. 전체적인 논조는 차려 먹는 식사보다 대충 먹으면서 감사하는 태도가 영적으로 더 훌륭하다

는 점에 맞추어져 있다. 사막 영성에서 보자면 음식 놓고 불평하는 자 치고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다. 반면 우리 현실에서는 음식과 영성을 서로 관련시켜 논하지 않는다. 음식은 개인적인 취향에 속할 따름이다. 탐식을 마귀이자 죄악으로 간주하고 교만과 연결시키는 기독교적 영성은 우리 문화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개인적 취향에 맡기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와 유교는 극과 극을 달린다. 기독교는 태동부터 결혼의 소중함을 설교 했고 일부일처제를 고수했다. 기독교의 일부일처제는 로마사회나 조선유교와는 아주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 로마법상 결혼은 일부일처제이지만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법은 여자 노예나 무희, 가수, 여인숙 종업원 등 정숙한 행실을 기대하기 힘든 계층의 여인들과의 성관계를 폭넓게 허용했고 이 때문에 내연관계가 만연했다.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면서도 내연관계를 허용한 로마식 제도는 조선 유교의 방식과 비슷하다. 조선 유교 역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면서 내연관계의 여인, 즉 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결혼 외의 혼외정사를 용인한 적이 없으며 이는 1-3세기이건 4-6세기이건 동일하다. 4세기의 수도자이자 교회의 대표들은 로마법상 간통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곤 했다. 380년 겨울 에바그리오스의 스승이었던 그레고리오스는 콘스탄티노플 성사도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과 황실고문단을 향하여 현행간통죄를 남녀에게 평등한 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 로마법상 간통죄는 기혼녀가 외간 남자와 성적 교섭 시에 성립되는 공범죄(共犯罪)였다. 반대로 유부남이 천한 계층의 여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었다. 그레고리오스는 로마법상 간통죄가 남녀에게 불평등한 것이므로 이것을 평등하게 바꾸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기독교 황제들조차도 특정한 혼외정사를 합법으로 본 로마법을 손대지 못했다. 로마법상 간통죄는 조선유교의 간통죄와 유사하다. 조선 유교의 경우도 간통죄는 결혼한 여자의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4세기 사막 영성은 성(性) 문제를 보다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다룬다. 사막 기독교인들은 남녀의 자연적인 결합도 거부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와의 영적인 결합에 지고의 가치를 두었다. 그리하여 사막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관계 이전에 발기 자체가 죄악시 되었다. 남성에게 개방적이었던 그리스-로마의 성문화는 이렇듯 사막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가장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다. 성에 대한 극단적 입장은 중세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마르틴 루터의 결혼(1525년)으로 와해된다. 이런 개신교적 전통에서 우리는 부부 간의 성적 결합을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막 영성이 말하는 음란의 마귀는 혼외의 성적 부정(不貞)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막 기독교인들은 탐욕의 마귀와 싸워야 했다. 이들에게 있어 탐욕의 마귀는 돈에 집착하는 태도뿐 아니라 미래를 염려하여 저축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때문에 사막의 현자들은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마 19.21)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재산 축적을 선과 악의 대립적 구도로 파악한다. 기독교 역사상 사막의 현자들처럼 재물을 악마화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맘몬 중에 택일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지만(마 6.24) 이미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이후 적지 않은 기독교 교사들은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했고, 재산 형성과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4세기 사막의 기독교인들은 당시 이런 기독교 주류에 역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고자 하였다.

사막의 현자들은 노동의 잉여물을 저축하는 태도조차도 탐욕의 마귀로 간주했으나 우리가 그런 입장을 따를 필요는 없다. 마르틴 루터는 가족의 생활을 위해 저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고(95개조 논제의 46조) 칼빈주의자들은 노동과 직업을 소명으로 승화시켰다. 노동의 결과 얻는 재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사막의 영성은 노동 없이 생겨난 소득의 실체를 마귀이자 악으로 규정해 준다. 사막 영성을 통해 판단하자면 기만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방조하고 약자의 오랜 노동을 탈취하도록 했던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정책은 마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에바그리오스가 다시 살아 우리 사회에 왔다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때를 놓고 '마귀적'이라고 쏘아 붙였을 법하다.

분노와 슬픔은 욕망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마귀이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낸 후 우울해 지기도 한다. 그 틈을 타고 분노와 슬픔의 마귀가 영혼을 공격한다. 에바그리오스는 오랜 동안 사막에 살던 기독교인들조차도 쉽게 화내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쓴다. 1세기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 (2013 사이)>라는 책을 쓴 바 있다. 화는 인간을 멧돼지나 야수같은 존재로 만드는 감정이므로 이성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세네카의 책을 아마도 읽었을 에바그리오스는 사막 영성을 통해 분노의 마귀와 그리스도의 온유를 대립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멧돼지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유를 본받아야 한다.

조선유교는 군사부일체 혹은 장유유서라는 개념을 통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내는 분노를 합리화시켜 왔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 욕망 때문에 분노는 더욱 증폭되고, 분노가 증폭되는 만큼 슬픔과 우울도 커진다.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우스갯소리로 상징되는 위계적 수직적 구조는 한국사회를 분노와 슬픔이 증폭되는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 왔다.

에바그리오스는 허영과 교만이 영적으로 가장 앞선 자들을 넘어뜨리는 마귀라고 했다. 사막에서 오랜 동안 살았던 자들, 교회에서 오랜 동안 묵회한 사제들이 허영과 교만의 마귀에게 농락당하기 쉽다고 보았다. 허영과 교만을 경계했던 사막 수도자들은 평신도의 헌금조차 받지 않았다. 금 덩어리를 헌금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 사막 현자들은 이를 한사코 거절했다. 남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자신이 도와주는 것인 양 하기 십상이다. 또 헌금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헌금함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허영과 교만의 마귀에 농락당한다. 때문에 사막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노동해서 살면서 잉여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만족했다. 또 묻기 전에는 말하는 법이 없었고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 위험하다고 보았다. 말하는 자치고 자신이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드문 까닭이다.

허영의 마귀와 교만의 마귀가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바그리오스가 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계량주의와 어설픈 지도자론이 떠오른다. 사막 영성은 양적 팽창이 허영과 교만의 마귀가 활동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다. 어설픈 지도자론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만큼 영혼에 해로운 것도 없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이념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앞에 나서서 타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배출은 유교의 이념이었고 목표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은 유교의 지도자상과는 현격히 다르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무얼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다(출 4.10-13, 렘 1.6).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부여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다. 이사야도 자신이 부정하다는 자아인식을 하고 있었다(사 6.5). 예수는 분명한 어조로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마 20.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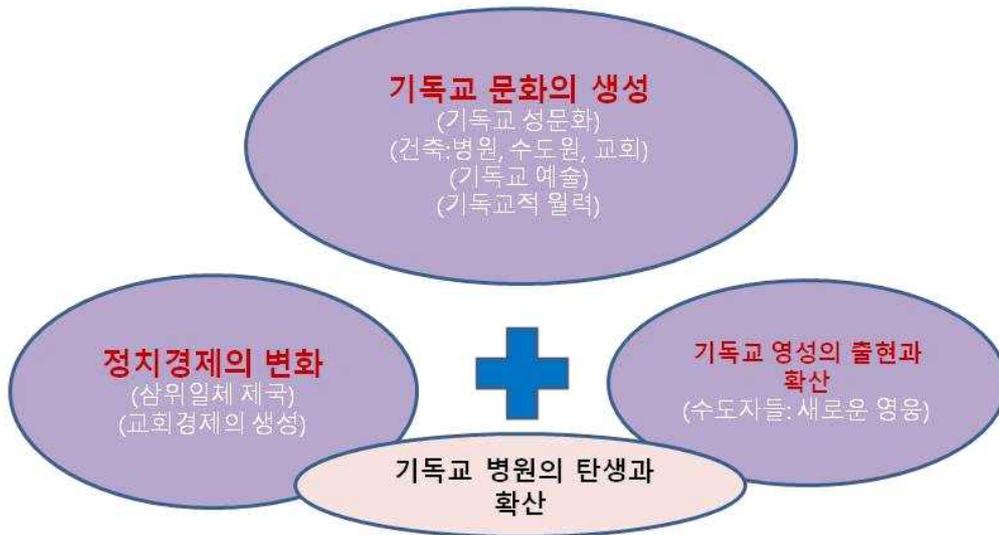
에바그리오스의 마귀론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에바그리오스가 399년 세상을 떠난 지 약 10년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신국론>은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세력, 다시 말해 선과 악의 대결을 주제로 한 역사철학서이다. 가시적인 세상에서는 마귀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종말에 이르러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도성은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은 에바그리오스의 마귀론을 사회와 역사로 확대한 결과이다. 마귀와 싸워야 할 주체는 개인이며 일차적인 싸움의 장소는 마음이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에서도 마귀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의 영성 배경

사막의 철학자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의
<실천학>을 중심으로

남영환
(Th. D. / University of Strasbourg France)
서울한영대 신학과 교수

그리스-로마문명과 4-6세기 기독교의 결합 서양 기독교 문명의 탄생



군사적 승리 + 수도이전 (기독교 수도 건설)

새로운 영웅의 탄생

그리스·로마 문명의 영웅

기독교 문명의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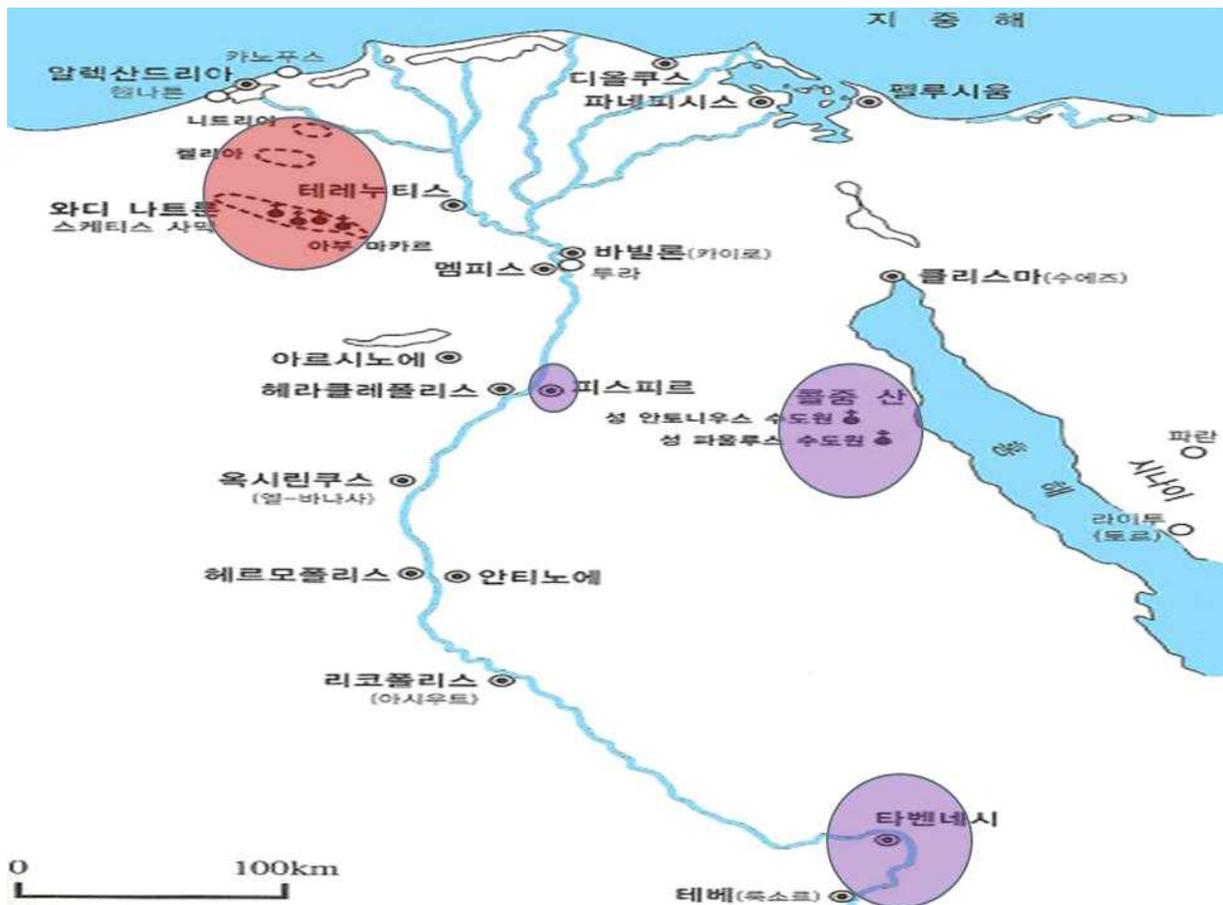
구시대 영웅의 조건

- 이성=지혜(그리스): 철학
- 아름다움(그리스): 조각·건축
- 자유와 명예(로마): 공화정
- 정복과 지배(로마): 로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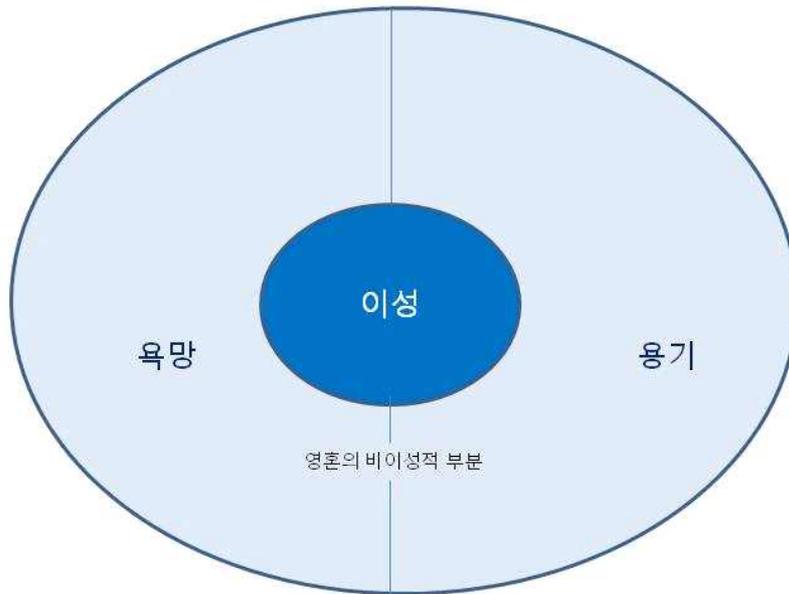
새 시대의 영웅상 (가난한 선행가)

온유+겸손+눈물+섬김

(기독교적 병원의 탄생과 발전)
(안토니오스의 생애)
(사막교부들의 금언집)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플라톤의 영혼의 삼분법



누가 정의로운가? (플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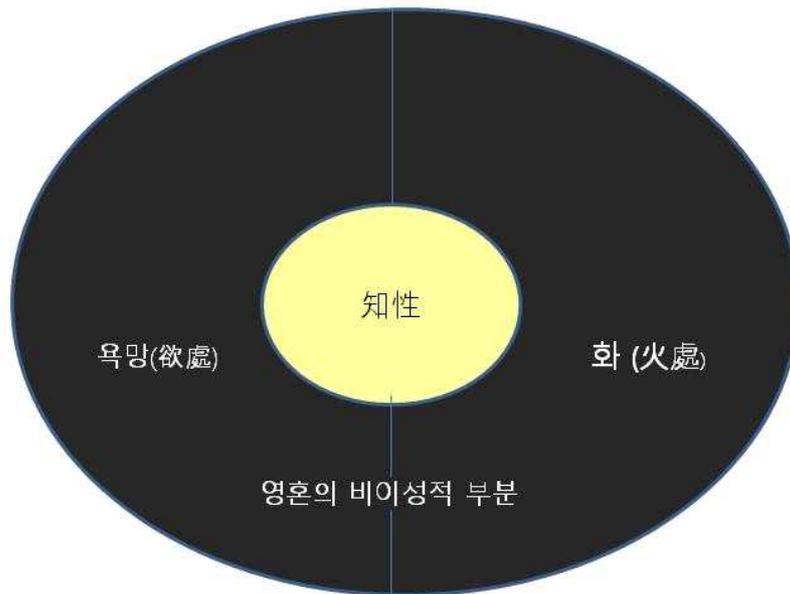
이성이 용기의 도움으로 욕망을 절제할 때 정의로운 인간이 된다

머리가 심장의 도움으로 배(위와 신장)를 절제할 때 정의로운 인간이 된다.

네 가지 덕목: 지혜 + 용기 + 절제 = 정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마 5:8)

영혼의 삼분법과 사막교부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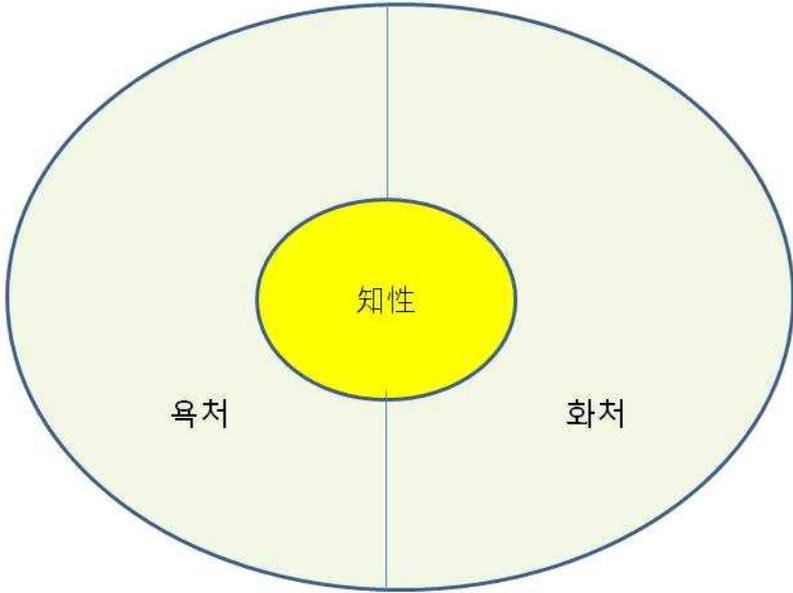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마 5:8)

욕처와 화처가 정화된 후라야
영혼은 지성으로 밝게 빛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욕처와 화처의 치료(정화)



마귀의 전략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욕(欲)으로 이끌어,**
 본성과는 달리 **화처(火處)로써** 사람들과 **다투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지성은 어두워지고 **앞에서 멀어져** 덕을 저버리게 된다”
 (에바그리오스의 <실천학> 24장)

“**욕처는 불타오르고... 화처는 요동친다**”
 (실천학 15장)

마귀의 최종목적



하나님과 단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
 (악덕의 상태)

욕망과 화

욕처가 짐승처럼 움직이면 보이는 대상에 눈이 멀고,
화처가 요동치면 지성이 눈먼 상태가 된다.
(에바그리오스의 <영성학대계> 5.27)

욕망은 화에 재료를 공급한다
(실천학 15장)

욕망이 실패한 결과로 생겨나는 화는 기도를 방해한다.
화는 영혼을 온종일 성나게 하며, 특히 기도 중에 영혼을 사로잡아
화를 일으킨 대상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여 기도를 방해한다.
(실천학 11장)

욕처도 치료해야 하지만,
화처는 욕처보다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
(실천학 38장)

영혼의 동요와 사념



욕처와 화처의 올바른 사용

욕처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화처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

영혼의 동요와 팔사념 (八邪念, 실천학 6장)

탐식

성적 부정

돈에 대한 사랑

화

슬픔(우울)

나태(무력감)

허영

교만

갑을관계(우리나라)

감각과 욕망, 인상과 기억

영혼의 동요는 감각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구하며, 구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쓴다.
 욕망은 쾌감을 만들어내고 감각은 욕망을 낳는다. 감각과 무관한 것에는 동요도 없다.”
 (실천학 15장)

감각-욕망-쾌감

동
요
의
경
계

인상-기억-습관

“우리가 동요하는 기억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기억의 대상을 동요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거꾸로 우리가 동요하며 대상을 받아들인다면 대상에 대해 동요하는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왕성하게 움직이는 마귀들을 이긴 자는 마귀들이 꾸며내는 것을 무시한다.
 비물질적 싸움이 물질적인 싸움보다 어렵다.”(실천학 34장)

정리

스토아 철학의 동요와 사막교부의 동요

스토아 철학의 네 가지 동요

	현재	미래
선	기쁨	희망
악	슬픔	두려움

에바그리오스의 여덟 가지 마귀

탐식 부정
 돈을 사랑함

화 슬픔 태만

허영 교만

(갑을관계)

동요(사념)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감각과 욕망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한다-정화

“감각은 자연적으로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사랑과 질제가 있다면 동요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동요가 생겨날 것이다.”
(실천학 38장)

사물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조명

“하늘나라는 영혼의 평정으로 존재들에 대한 진정한 앎을 동반한다.”
(실천학 2장)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앎에 이르게 된다
(영성학 45장)
두 번째 부인(否認)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에 응답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악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사념론 장문판 25장).

평정(apatheia)과 깨끗한 기도-합일

평정에 도달한 영혼은 대상 앞에서 동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에 대한 기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실천학 67장)

지성이 자기 자신의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잠 속에서의 상(像) 앞에서도 평온하며,
대상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평정의 증거다.
(실천학 64장)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상상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에 지성은 천천히 전진한다
(실천학 65장)

서양 기독교 문명의 영웅상

그리스적 영웅상 + 기독교적 영웅상

정의로운 사람

지혜 + 용기 + 절제 = 정의

+

하나님을 보는 사람

욕망과 화처를 정화하여
지성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서양 기독교 문명의 영웅상

스토아적 영웅상 + 기독교적 영웅상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4가지 동요로부터 자유해야

+

깨끗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여덟 가지 동요(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

서양 기독교 문명의 영웅상

로마적 영웅상

+

기독교적 영웅상

영광을 탐하는 사람

자유 + 명예 + 지배

+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

병원을 설립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와 나그네를 보호

사막교부들의 금언집

안토니오스 금언 소개

15장 1절

압바 안토니오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심오하심을 유심히 탐구하다가 이렇게 여쭙었다.

“주님, 어찌하여 어떤 이들은 젊어서 죽고, 어떤 이들은 아주 늙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까? 왜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의로운 자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한 목소리가 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안토니오스야! 네 자신에 주목하여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몫인즉 그걸 안다고 해서 너에게 유익할 것이 없느니라.”

8장 2절

수도자들이 압바 안토니오스 앞에서 어떤 형제를 칭찬했다.

안토니오스는 그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그가 모욕을 참아내는지 시험하였다.

그런데 그가 모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에게 “그대는 앞쪽은 잘 꾸며져 있지만 뒤쪽에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마을 같구먼.”이라고 말했다.

16장 19절

그가 또 말했다.

“나는 나를 정죄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로운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가 허영에 찬 내 영혼에 경멸이라는 치료제를 발
라준다면, 나는 영혼의 의사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10장 1절

압바 안토니오스가 말했다.

“수덕(修德)으로 자신의 몸을 으깨지만, 분별
이 부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들
이 있다.”

17장 32절

교부들이 말했다.

“악마는 모든 것을 흉내 낼 수 있다.

금식을 흉내 낼 수도 있는 것은, 악마 자신이 결코 먹지 않기 때문이다.

철야를 흉내 낼 수 있는 것은, 악마 자신이 결코 자리에 눕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마는 겸손과 사랑을 흉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사랑을 품고 교만을 미워하도록 많이 싸워야 한다.

교만 때문에 악마는 하늘로부터 추락했다.”

1장 2절

압바 팜보가 압바 안토니오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무엇 해야 하는지요?”

원로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의로움에 확신을 갖지 마시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마시오. 혀와 배를 절제하는 자가 되시오.”

질문

1. '죄'는 사막교부들의 금언집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묘사되는가?
2. 금언집이 추구하는 '덕'은 무엇인가?
3. 금언집이 추구하는 '덕'은 동서양의 덕목과 어떻게 다른가?
4. 사막교부들이 '욕망'과 '화'를 마귀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욕망'과 '화'로부터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사막교부들이 행했던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6. 금언집에 비추어보자면 '갑을사회'가 마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7.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중 하나는 '탐욕'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절제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탐욕'의 절제를 개인에게 맡겨 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탐욕'(돈에 대한 사랑)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절제시켜주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